

‘좁아서 숨막히는’ 신축 광주교도소

5인실 8명·3인실 5명 수용...방 소형화에 생활 면적 줄어 신문지 깔고 식사·화장실 문 열어야 취침 가능...불만 폭주

45년 만에 신축 이전한 광주교도소가 ‘인권친화적 시설’이라는 홍보와 달리 5인실에 8명을 수용하는 등 재소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옛 광주교도소에 비해 부지면적과 연면적 등 덩치는 커졌지만 실제 생활면적이 줄어 수용자 과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소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지만 정작 광주교도소 측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광주교도소와 재소자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서 삼각

동 신축 교도소로 이전한 이후 5인실에 8명, 3인실에 5명을 수용하는 등 수용 정원보다 많은 재소자를 한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있다.

5인실 면적은 13.15㎡(약 4평)로 8명이 한 방에 생활할 경우 1인당 1.6㎡, 즉 0.5평도 되지 않는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광주교도소에는 정원(1500명)보다 많은 1700여명(미결수 900여명, 기결수 800여명)이 수용돼 있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은 비좁은 방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 공간을 확보한 뒤에야 겨우 잠을 청하고, 관물함이 부족해 일부

수용자들은 개인 짐을 풀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수용자들은 5인실에 비친된 밤상에 함께 앉지 못해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용실의 ‘콩나물 시루’ 현상은 수용자들의 방을 소형화하고 독거실(1인실) 비율을 늘리면서 발생했다.

신축된 삼각동 교도소는 부지면적 28만 7000㎡(약 8700평), 연면적 5만㎡(약 1만 5000평) 규모로 옛 문흥동 교도소에 비해 각각 2.7배, 1.7배 증가하는 등 덩치는 커졌다.

하지만 기존 10인실 위주의 수용실을 1·3·5인실로 소형화하고, 1인실 비율을 33.8%에서 62.5%로 늘리면서 실제 수용자들의 이용 공간은 줄어들었다. 옛 문흥

동 교도소의 경우는 10인실 이상 혼거실을 운영하면서 정원(1400여명)보다 많은 2000여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었다.

한 수용자는 “수용생활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흑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속앓이만 하고 있다”며 “교도소 측의 말과는 달리 수용자들의 처우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교도소 직원들의 근무여건만 개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실을 소형화하다 보니 공간이 작아져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법무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자세한 사항은 보안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1100여억원을 들여 건립한 삼각동 광주교도소는 지난 2010년 6월 착공해 지난 5월 완공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재활용 의류 모으기 경진대회 광주 북구청과 새마을부녀회가 마련한 재활용 의류 모으기 경진대회가 28일 북구 동림동 산동고 하천부지에서 열렸다. 이날 북구지역 27개 주민센터에서 수집한 재활용 의류를 부녀회원들이 차에서 내려 무게를 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광주환경운동연합 캠페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참여하는 캠페인은 29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지평동 롯데마트 상무점 앞, 오후 7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들은 캠페인을 통해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지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반’을 사용한 소비자 중 광주·전남지역 피해자를 찾는다.

임신부와 영·유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3차 피해 신청은 오는 12월 31일 마감된다. /김형호기자 khh@

고려인 마을 합동결혼식

20쌍 다음달 11·26일

☞고려인마을은 다음 달 고려인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을 무료로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동안 새 가정을 꾸렸지만 어려운 경제 형편 탓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고려인 부부를 위해 마련됐다.

고려인마을은 광주 광산구청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후원으로 고려인 부부 20쌍을 선발해 다음 달 11일, 26일 두 차례로 나눠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 예식장에서 합동결혼식을 연다. 이들 부부에겐 세탁기, 1박 2일 여행 경비 등을 선물한다.

고려인마을은 지난해부터 고려인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을 열고 있다.문의 (062-961-1925) /최승렬기자 srchoi@

소음 민원 시끄러운데...공군 “한미 훈련 취소 불가”

광주 제1전투비행단 설명회...내달 2~6일 비행훈련

한미 연합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과 미7공군사령부가 소음 피해 우려로 인한 반대 여론에도 훈련취소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28일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 면회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공군 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서민호 대령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대북작전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훈련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대령은 “다만 야간소음 피해 최소화

를 위해 최소 수준 야간비행훈련, 고고도 임무수행, 신속한 이륙으로 소음 최소화, 이착륙 훈련 미시행 등을 미군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군 소음 피해 반대 여론이 있는 광주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 전력이 훈련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훈련기간인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모두 100여회의 추가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수능을 앞두고 대규모 비행훈련으로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중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내년부터는 훈련일정을 수능 기간을 피해 정하도록 미군 측과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미 7군사령부 참모장 비시안 대령도 “비행훈련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잘 알고 있지만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는 광주시와 광주 광산구의 관계자들도 참석해 훈련 취소, 수능 이후 연기, 야간비행 자제 등을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0 해질 17:42 달출 19:22 달짐 08:25

농작물 관리유의
아침에 일부 지역에 서리가 내리겠다.

지역	구름량	기온	비
광주	8/18	보성 맑음	5/17
목포	10/17	순천 맑음	7/18
여수	11/17	영광 맑음	8/17
나주	5/18	진도 맑음	9/17
완도	10/17	전주 흐림	7/18
구례	5/17	군산 흐리고비	8/17
강진	8/18	남원 흐림	5/17
해남	7/19	홍산도 구름많음	12/16
장성	6/17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남부	면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면바다(동)	북서~북	0.5~1.5	서~북서	1.0~1.5
서부	면바다(서)	서~북서	1.0~1.5	서~북서	0.5~1.5

목포	밀물		썰물	
	02:59	08:12	15:35	20:43
여수	10:11	03:41	22:22	16:09

기간	날씨
30(금)	8/14
31(토)	7/14
11/1(일)	6/14
2(월)	7/17
3(화)	7/17
4(수)	7/19
5(목)	8/19

순천대 신임 총장, 용퇴 요구 거부

순천대 총장 임명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순위 후보자로 총장에 임명된 박진성 순천대 신임 총장이 총장으로 서의 임무를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및 순천대 교수들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의와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박 신임 총장은 28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으로 임명받은 저로서는 지역의 명문대학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는 책무

가 주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행사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며 “총장 임명과 관련해 생긴 갈등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고 보직교수 임명에도 폭넓게 인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총장은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용퇴’ 요구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며 “시민단체가 물러나라고 할 명분도, 귀담아 들을 이유도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작은아버지 흥기로 찌른 20대 구속

장에 아버지 무시에 불만

평소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해 왔다는 이유로 작은아버지를 흥기로 찌른 20대가 붙잡혔다.

2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한 집에서 지내던 작은아버지를 흥기로 찌러 살해하려던 전모(28)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작은아버지 A(46)씨의 목과 옆구리를 흥기로 찌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또 전씨를 찌른 전씨의 아버지(60)도 흥기에 팔을 찌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9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가 평소 생각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한 데 대해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이날 A씨가 2년 전부터 카우던 개가 시끄럽게 짖자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자 미리 준비해둔 흥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인기자 kki@

jtbc GOLF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10월 10일까지 이벤트 진행중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전국 300곳 골프장 무기명 선불카드

그린피 “전액무료”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진리.광주지사상품 (수도권 및 부산, 대전상품 상이하니 별도문의 바랍니다.)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해당 골프장과는 무관하며 에스골프는 부킹몰(주)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VAT포함 금액

보증형 상품안내 (100%취환)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S-트윈	보증금 : 3,000만원 입회금 : 660만원	무기명 2인	5년	총 120회 (년 24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총 245회 (년 48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보증금은 5년 만기시 무이자로 반환되며 입회금은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에스골프

에스투어

해외골프투어
동남아 원하시는 곳 어디나 가능!!

“총 50박 무료!!”

동남아시아상품 (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구분	분양가	회원구성	이용기간	회원혜택(무료)
S-투어(싱글)	297만원	기명1명	5년(년10박)	1박 18홀 기준 전액무료 <small>불포함사항 항공료(TAX, 유류할증료), 석식, 카트비(캐디비, 캐디팁)외, 별도 추가비용</small>
S-투어(트윈)	495만원	기명1명+ 무기명1명		
S-투어(VIP)	880만원	기명1명+ 무기명3명		

※ 상기 금액은 VAT포함 금액

문의전화 062-415-8811

지 사 서울(수도권지역) 1566-9799 경남(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부산(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대구(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산(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